

국어 연결어미의 통합 관계*

서형국**

1. 緒
- 2.
- 3.
4. 結

1. 緒

국어 연결어미에 대한 연구는 통사 구조에 대한 연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이루어져 왔다. 연결어미가 참여하는 구성이 어떤 통사 현상을 보이며, 이 구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점이 많은 연구의 초점이 되어 왔다. 본고는 국어 복합문 연구의 일환으로 연결어미가 어떤 특성을 갖는 것인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시도의 하나로 이루어진다. 이 글은 국어 연결어미가 갖는 형식적 양상, 특히 연결어미의 통합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어 연결어미의 특성과, 국어 연결어미 통합 구성이 갖는 특성

* 이 논문은 2006년 8월 10일 원광대학교 승산기념관에서 있었던 우리어문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국어 연결어미 ‘고’의 통사적 위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이다. 당시 발표회장에서, 그리고 이 논문을 투고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의 조언을 얻을 수 있었음을 감사드린다. 그럼에도 이 글에서 발견될 수 있는 모든 잘못은 필자의 것임을 밝힌다.

** 거래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연구부장.

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연결어미에 대한 많은 연구 업적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장들이 남아 있다. 연결어미 ‘-고’를 중심으로 하여 다음 예문을 설명할 방안을 생각해 보자.

(1) ㄱ. 죽고 없어질 몸

ㄱ'. 가고 오지 못한다는 말을, 철없던 시절에 들었노라

ㄱ". 철회와 영화는 죽고 못 사는 사이였더랬죠.

ㄴ. 퇴직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ㄴ'. 치아 부정교합은 심각한 질병일 수 있으나 사람이 죽고 사는 질병과는 다릅니다.

(1ㄱ, ㄱ', ㄱ")의 문장들은 ‘-고’가 연결된 동사구와 ‘-고’ 뒤의 동사구가 내용상 동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들이다. 그러나 (1ㄱ, ㄱ')의 ‘-고’는 시간 해석상 선행절이 후행절보다 앞서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중속접속’의 ‘-고’와 같은 해석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다.¹⁾ 또 (1ㄴ, ㄴ')은 ‘-고’에 선행하는 동사구와 후행하는 동사구가 내용상 대립어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시간 관계로 해석되지 않는다. 오히려 (1ㄴ, ㄴ')은 내용상 이접 구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이해된다. 이들 예문은 지금까지 ‘-고’와 관련하여 제시되었던 설명 방안, 그 가운데 특히 ‘대등/중속’의 구분 외의 다른 방법론이 필요함을 말해 준다.²⁾

1) (1)의 예문에 대해서는 이동이나 대명사화와 같은 전형적인 통사적 검증 방법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들은 확장되지 않은 동사(어간)와 연결어미가 통합한 음운론적 단어들끼리 모여 이루어진 구성이기 때문이다. 이 글의 작성 과정에서 (1ㄱ")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중속접속” 구성처럼 해석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 (1ㄱ")은 적어도 (1ㄴ) 부류와 같이 이접적 해석을 입지 않는 한편, (1ㄱ, ㄱ')처럼 시간 관계로도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1ㄱ")의 두 명제는 내용상 동의적이라는 점에서 (1ㄱ) 부류로 묶어 두고, 이들 구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별고에서 다루기로 한다.

위의 문장들은 직관 상 대등한 내용/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㉑), 이들은 또한 선·후행 형식이 동형적임(㉒)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㉒의 경우는 동사가구 형식상 동형인 경우, 어말어미가 동형인 경우, 명제 내용이 동형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가운데 ㉑의 문제는 대개의 논의에서 잠정적으로 전제되었거나 논의의 주된 관심 대상으로 부각되었고, ㉒의 문제는 주로 통사 구성을 다루는 데서 검토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구성에 모두 연결어미가 사용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결어미가 사용된 구성의 분포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한 논의는 많지 않다.³⁾

본고는 (1)과 같은 문장, 혹은 구성을 통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국어 연결어미들이 보이는 통합 관계를 일괄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본고에서 살펴보게 될 통합 관계는 연결어미가 선어말어미, 문 종결의 휴지(#), 보조사, 계사(-이-), “#하-” 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본고는 연결어미 통합 구성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위하여 연결어미의 분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형식론적 연구에 해당하므로 이들 통합 요소들이 어떤 통사적 단계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관건으로 다루지 않는다.⁴⁾

본고에서는 위의 구성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논의되어 온 ‘-고, -고서, -은데, -어서, -으러, -러고, -도록, -게, -면서, -거든, -느라고, -으니, -니까, -든지, -면, -지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⁵⁾

2) 이 글에서는 (1)의 문장을 모두 해결할 여유를 갖지 못한다. 필자는 (1)을 포함하는 ‘연결어미 통합 구성’에 대해 다시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고(줄고 2005a, b 참고), 본 논문을 포함한 앞으로의 연구를 몇 편의 글로 나누어 발표하려 한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의 일환으로 통합 관계를 중심으로 한 분포에 대해서만 살펴보게 될 것이다.

3) 기존의 논의 가운데 특히 권재일(1985)와 같은 논의에서 이를 면밀히 검토한 바 있다.

4) 따라서 ‘#’을 생략에 의한 것과 도치에 의한 것으로 구분한다거나(유현경 2003), ‘-이-’ 통합을 의사 분열문 구성(임규홍 1987)으로 명명하지도 않는다.

2. 기반적 논의

본고에서 살펴보게 될 통합 관계 가운데 선어말어미, 보조사와의 통합 관계는 주로 형태론적 현상으로 다루어진 것이고, 문 종결의 휴지(#), 계사(-이-), “#하-” 등과의 통합 관계는 통사론적 현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어 문법에서 연결어미는 대체로 복합문 구성의 통사적 현상과 관련하여 통사론적 대상으로 취급되어 왔다.

선어말어미 통합 관계는 그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연결어미가 어떤 문법 현상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로 언급되었다. 선어말어미 통합 관계는 ‘시제’나 ‘법’ 등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를 시도한 때에도 이들이 형태론적으로 어떤 현상을 보이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완성된 경우는 많지 않다.⁶⁾ 선어말어미 통합 현상이 본질적으로 형태론적인 것인 한, 연결어미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결어미가

5) 이 글의 주된 관심은 ‘연결어미’에 있다. 따라서 이들 용어는 ‘연결어미’의 관점에서 주로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살펴보게 될 분포 환경에는 기존에 ‘연결어미’나 ‘접속어미’의 통합 관계로 다루어졌던 환경뿐 아니라, ‘종결어미’의 통합 관계로 다루어졌던 환경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연결어미로 다루어질 사항뿐 아니라 ‘종결어미’로 다루어질 사항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어말어미’라는 용어로 아우르기로 한다.

6) 선어말어미 실현이 의미 해석을 바탕으로 문법 범주의 실현으로 이해된 경우로 (ㄱ)을, 통사 구성의 표현 관계를 해석하는 데 쓰인 경우로 (ㄴ)을 예시하기로 한다.

(ㄱ) ㄱ. 등위접속의 경우 부분적으로 {-었-}의 출현 여부에 따른 발화시 기준의 ‘過去 : 非過去’의 대립이 성립하지만, {-었-}이 없는 형식은 이러한 대립관계를 벗어나 文脈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의 어느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崔東柱 1994: 53).

ㄴ. 종속접속의 ‘<고>’는 … 후행절 時點을 기준으로 하여 선행절의 시간적 위치가 해석되기는 하지만, 상대시제로 볼 수 없다(崔東柱 1994: 58).

(ㄴ) 대등접속문에서 선행절의 기능범주 A가 B를 성분지휘하고 그 역은 아닐 때 A가 B에 우선하여 탈락한다. 이 경우 탈락은 음성적 비실현을 의미한다(허철구 2004: 74의 24).

이들 선어말어미와 통합하는 현상은 중요한 문법적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 종결의 휴지 앞에 연결어미가 놓이게 되는 현상이나, 어말어미가 계사, ‘#하.’와 통합하는 현상은 지금까지 어미 통합 구성의 통사론을 언급하면서 부분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들이 모두 어미의 분포를 형식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 주목하여 선어말어미 통합과 같은 형태론적 현상과 대등한 관점에서 이들의 분포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고에서는 이들이 실제 구성으로 나타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선어말어미 통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펴보하고자 한다. 단, ‘#하.’ 통합 구성은 대동사가 아닌 형식동사로 해석되는 경우만을 검토하고,⁷⁾ 예는 주로 말뭉치에서 취하도록 한다.⁸⁾

본고의 대상이 되는 어미는 넓은 분포를 보이는 연결어미로 선정하였다.⁹⁾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형태소는 통사적으로 상이한 여러 위치에 분포하는 어미인데, 이 가운데 가장 큰 제약을 보이는 것은 휴지 앞에 놓이는 환경이다. 따라서 본고의 논의 대상은 종결어미처럼 사용되는 연결어미로 국한한다. 논의 대상을 이와 같이 한정하는 것은,

7) ‘#하.’에 대동사적인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면, 이는 기왕의 연결어미 통합구성과 다를 것이 없어지게 된다. 또한 형식동사와 통합하는 연결어미는 그동안 비교적 자의적으로 언급되어 왔던 ‘독립성’과도 연계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8) 본 연구에서 참고한 말뭉치는 문화관광부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한 550만 어절 구문표지 부착 말뭉치이다. 말뭉치에 나타나지 않으나 필자의 직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타 자료를 검토하여 논의에 반영하였다. 이를 검토하고 열람하는 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이경호 연구원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 연구의 상당 부분을 같이 할 수 있었던 데 사의를 표한다.

9) 국어 연결어미는 본질적으로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로서 ‘문법형태소’로만 규정하기 어려운 대상이나, 통사론적 구조를 이루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요소로 판단한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다(줄고 2005b 참조).

연결어미 전반의 문법적 특성을 확인하는 데도 목적이 있으나, 먼저 연결어미가 사용되는 분포가 연결어미 기술에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확인하는 것도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2) 종결어미처럼 쓰이는 연결어미 목록(유현경 2003: 126)¹⁰⁾

-고, -어/어서, -고/고서, -(으)면, -(으)면서, -(으)는데, -지만,
-(으)니까, -(으)려고, -(으)러, -든지, -느라고, -거든, -게, -도록

(2) 가운데는 동음이의적으로 처리되어 온 많은 형태소가 있다. 이들 가운데 본 연구에서 관여 특성으로 보는 것을 비관여 특성과 구분함으로써 연결어미 논의의 관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형태적이거나 형식적으로 분명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단일한 연결어미로 취급하는 것을 우선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연결어미에 대한 구분 기준 가운데 형식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것은 대등적인 것과 종속적인 것을 구분하는 데 있었다. 이를 ‘대등적/종속적 연결어미’나 ‘대등접속/종속접속 어미’ 등으로 명명해 왔다. (2)의 연결어미 목록 가운데 ‘-고’가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 (3) ㄱ.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ㄱ'. 인생은 짧았고 예술은 길었다.
 ㄴ. 철수는 밥을 먹고 물을 마셨다.
 ㄴ'. 철수는 밥을 먹었고 물을 마셨다.

10) 특히 연결어미적인 용법과 종결어미적인 용법을 모두 보이는 어말어미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기술로는 이들을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후술함).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잠정적으로 기존 논의에서 위의 여러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 대표적 논의의 어미를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형식적 측면만을 감안할 때 (3)에서 확인되는 ‘-고’는 (ㄱ) 부류와 (ㄴ) 부류가 전혀 같다고 할 수 있다.

형태론적으로 ‘-고’를 다룰 때 이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른바 ‘내포접속문’¹¹⁾ 부류에 속하는 것들이다.

(4) ㄱ.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춥고 하다.

ㄱ'.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춥고]] 하다

(4)에서 “내리고”와 “춥고”는 형식적으로 (3)의 “짧(았)고”나 “먹(었)고”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춥고”는 (3)과는 다른 형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형식적인 특성은 연구에서 감안해 넣기로 한다.

음상으로는 같은 연결어미라 할지라도 형태론적 실현 양상이 분명히 차이가 나고, 그 의미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음이의어로 처리한다. 특히 선어말어미 통합 양상에서 차이가 나는 때에는 사전 처리 방식에 구애되지 않고 별도 형태소로 처리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연결어미는 ‘-고’, ‘-으니’, ‘-든지’, ‘-면’이 해당된다.¹²⁾

11) 우리는 ‘내포접속문’이라는 대상이 더 명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이른바 ‘내포접속문’이란, “가거나 오거나 하.”와 같은 부류를 일컫는다. 그러나 우리는 “가거나 오거나”와 같은, ‘가-, 오-’를 취하는 “~거나 ~거나”가 직접적인 해명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거나’에 대한 논의와도 어느 정도는 차별된다고 믿는다. 이들이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그 이후의 일이 될 터이다. 다만 “~거나 ~거나”에 대한 논의가 우리의 주된 대상이 아니므로 잠정적으로 “(이른바) ‘내포접속문’”이라는 제한을 두어 부르기로 한다.

12) (5)에서 예시하는 어미 형태들은 동음형으로 다루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분포상의 차이만을 보이기로 한다. 또, 어미 ‘-게’의 경우는 동음어형으로 다루는 전통적 경향이 강하므로 논의 대상에 넣지 않는다. 부사형어미 ‘-게₁’ 외에도 명령형 종결어미 ‘-게₃’, 선어말어미 ‘-었-’과 주로 통합하여 나타나는 의문형 종결어미 ‘-게₂’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 가운데 부사형어미 ‘-게₁’만이 논의 대상이 되므로 특별한 언급 없이 ‘-게₁’만을 논의 대상으로 한다.

- (5) 가. -고₁: 철수는 집에 있겠고 영화는 학교에서 공부할 것 같다.
 가'. -고₂: ??/*철수가 집에 있겠고 학교에 있겠고 간에 얼른 만나야 해.
 나. -으니₁: 그걸 두고 군대에 갔으니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나'. -으니₂: *이선희가 그때 대상을 땀으니 못 땀으니 이견이 심했다.
 다. -든지₁: 어머니는 집에 계시든지요.
 다'. -든지₂: ??비가 오든지 말든지요.
 라. -면₁: 오늘 같은 날은 비라도 한 번 오면 좋겠다.
 라'. -면₂: *나도 텔레비전에 한 번 나와 보면.

마지막으로 연결어미가 문 종결의 휴지 앞에 나서기는 하되 의문문으로만 나타나는 경우에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6)과 같은 경우를 감안할 때, 연결어미가 문말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구성성분을 이룰 수 있지만 하면, 해당 어미의 속성이 주도적으로 작용하지 않아도 문말 휴지 앞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6) 가. 甲: 방 안에 아무도 없어. 乙: 영수도?
 나. 甲: 비가 300밀리나 왔덴다. 乙: 언제부터 온 거? 어제부터?

(6)의 예에서 답변에 사용된 ‘乙’의 파편문은 종결어미적인 용법과 무관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문말에 의문문의 수행억양을 가지는 것들은, ‘의문문’을 만들기는 하나, 해당 형태소가 의문형 종결어미로 쓰인다는 점을 보장해 주지 않음을 뜻한다. 혹여 (6)과 같은 의문문을 우리의 논의 대상으로 넣는다면, ‘乙’의 “문말” 형식 역시 “의문형 종결어미”로 처리하는 것이 일관되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3. 국어 연결어미의 통합 관계 양상

이상의 조사 대상과 분류 기준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확보한 국어

연결어미의 형태론적 분포는 다음 (7), (8)과 같다. (7)은 문장 내에서 연결어미의 본디 용법으로 사용된 경우의 형태론적 실현 양상을 보인 것이고, (8)은 문 종결의 휴지 앞에서 사용된 경우의 형태론적 실현 양상을 보인 것이다.¹³⁾

(7) 연결형으로 사용되는 연결어미의 통합 상황

	었	었었	겠	었겠	시	반복형	요	는	#하-	-이-	동음형
고 ₁	○	○	○	(○)	○	×	○	(○)	??	×	○
고 ₂	○?	×	??	×	○	○	×	×	○	○	○
고서	×	×	×	×	○	×	○	○	×	○	×
은데	○	○	○	○	○	×	○	×	×	×	×
어서	○?	??	○?	??	○	×	○	○	×	○	×
으러	×	×	×	×	○	×	??	○	×	×	×
려고	×	×	×	×	○	×	○	○	○	×	○
도록	×	×	×	×	○	×	??		○	??	○
게	×	×	×	×	○	×	○	○	○	×	○
면서	×	×	×	×	○	×	○	(○)	×	○	×
거든	○	○	○	○	○	×	○	×	×	×	×
느라고	×(○)	×(?)	×(○)	×	○	×	○	×	×	×	×
으니 ₁	○	○	○	○	○	×	○	×	×	×	○
으니 ₂	×	×	×	×	○	○	×	×	○	×	○
니까	○	○	○	×	○	×	○	(○)	×	×	×
든지 ₁	(○)	(○)	×	×	○	×	○	×	×	×	○
든지 ₂	(○)	×	×	×	○	○	○	×	○	??	○
면 ₁	○	○	○	○	○	×	○	(○)	×	×	○
면 ₂	○	○	×	×	○	×	○	(○)	○	×	○
지만	○	○	○	○	○	×	○	(○)	×	×	×

13) 연결형과 종결형에서 분포상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그 칸을 어둡게 표시하고, 논의상 중요한 분포 상황에서는 해당 분포형을 굵게 표시하였다.

(8) 종결형으로 사용되는 연결어미의 통합 상황

	었	었었	겠	었겠	시	반복형	요	는	동음형
고 ₁ #	○	○	○	(○)	○	×?	○	(○)	○
고 ₂ #	○?	×	??	×	○	○	×	×	○
고서#	×	×	×	×	○	×	○	(○)	×
은데#	○	(○)	○	(○)	○	×	○	×	×
어서#	(○)	??	(○)	(겠었)	○	×	○	×	×
으러#	×	×	×	×	○	×	○	×	×
려고#	×	×	×	×	○	×	○	×	○
도록#	×	×	×	×	○	×	○	×	○
계#	?	×	×	×	○	×	○	(○)	(○)?
면서#	○	(○)	×	×	○	×	○	(○)	×
거든#	○	○	×	×	○	×	○	×	×
느라고#	×	×	×	×	○	×	○	×	×
으니 ₁ #	○	×	×	×	○	×	○	×	○
으니 ₂ #	×	×	×	×	○	○	×	×	○
니까#	○	○	×	×	○	×	○	(○)	×
든지 ₁ #	(○)	×	×	×	○	×	○	×	○
든지 ₂ #	(○)	×	×	×	○	○	??	×	○
면 ₁ #	○	○	×	×	?	×	○	(○)	○
면 ₂ #	○	×	×	×	○	×	○	(○)	○
지만#	○	○	○	○	○	×	○	(○)	×

다음에서는 (7)과 (8)에서 확인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이들에서 확인되는 통합 관계상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시도해 보기로 한다. 이에는 특히 국어 연결어미가 형태론적으로나 통사론적으로 어떤 의의를 갖는 것인지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기로 한다.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시-’와 ‘-요-’의 통합에서 특별한 제약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이들 형태소에 관한 한, 어미 각각이 가지고 있는 형태소의 개별적 속성이 이들 형태의 속성에 우선해서 발현되지 않음을 뜻한다. 즉, ‘-시-’와 ‘-요-’가 우리의 논의 대상 대부분의 어미

에 대해서 보이는 특성은 어말어미의 형태소적 특성이 아니라 ‘-시’와 ‘-요’의 형태소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그런데 ‘-요’의 분포와 관련해서는 연결형과 종결형의 ‘-고2’, ‘-으니2’와, 종결형의 ‘-든지2’가 통합하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내포접속문’, 즉 반복형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이들은 모두 형식동사 ‘하’와 통합할 수 있다는 특성 역시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고1’, ‘-으니1’, ‘-든지1’이라는 비반복형의 동음이의 형태소를 가지고 있다. 즉, ‘-고’, ‘-으니’, ‘-든지’는 이들이 반복형이 될 때에만 ‘-요’가 통합하지 못하고, ‘#하’가 통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요’나 ‘-고, -으니, -든지’의 형태소적 특성보다 반복형(‘내포접속문’)이라는 구조적 속성이 통합 관계를 더욱 강력하게 제약함을 뜻한다.

요컨대, ‘-요’가 가지고 있는 생산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라는 구성이 통사적인 것이라는 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구조적 속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소의 형태론적 실현 양상이 다른 것에 우선해서 제약을 받는다. 또한 ‘반복형’ + ‘#하’의 사이에는 ‘-요’가 통합할 수 없음도 주목된다.¹⁵⁾

‘#하’ 통합 현상을 ‘-요’와 연관지어 위의 어미들을 설명하고 나면, ‘#하’ 통합이 가능한 나머지 어미에 대한 설명도 자연스럽다. ‘-려고, -도록, -게, -면2’가 ‘#하’가 통합할 수 있는 나머지 어미들이다. 이들

14) 이는 ‘-시’가 여타 선어말어미와 다른 형태론적 속성을, ‘-요’가 여타 보조사와 다른 형태론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잠정적으로 이들은 현대국어에서 가장 생산적인(교착적인) 형태소라 할 수 있을 것으로만 언급해 두기로 한다. 특히 ‘-시’는 어휘적 속성을, ‘-요’는 담화적 속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형태소라는 점이 중요하게 아울러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15) 이는 반복형에 이어지는 ‘하’가 형식동사로서 ‘수렴표현’으로 사용되는 구조적 요인(줄고 2005a)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조를 갖게 될 때 어째서 보조사 통합을 제약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미는 ‘#하-’와 통합하는 공통된 속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속성은 ‘#하-’와 관련되는 이들 어미의 개별적 속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려고, -도록, -게, -면2’는 모두 명령이나 청유와 같은 발화자의 의지, 소망 등과 관련되어 있는 맥락을 표현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즉, ‘-려고, -도록, -게, -면2’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여타 어미들과 다른 화용론적 맥락을 가지는 어미로 볼 수 있다. 이 때 형식동사인 ‘하-’가 통합한다는 것은, 이들 어미가 표현하는 화자의 화용론적 맥락을 동사구로 실현시키는 통사적 과정(혹은 어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려고, -도록, -게, -면2’의 어미가 갖는 속성이 무엇인지 아직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고서, -으러, -면서, -느라고, -으니2’ 등은 어떤 선어말어미도 통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어미들이다. 이들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미 각각의 개별적 속성과 달리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달라지는 현상으로는 종결형과 연결형으로 쓰임에 따라 달라지는 통합 관계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종결형과 연결형에서 선어말어미 통합 양상이 달라지는 어미에는 ‘-어서’, ‘-면서’, ‘-거든’, ‘-으니’, ‘-니까’, ‘-면2’가 있다. 또한, 종결형과 연결형에서 보조사 통합 양상에 차이가 있는 어미는 ‘-고서’, ‘-어서’, ‘-으러’, ‘-려고’, ‘-도록’, ‘-든지2’가 있다.

먼저 선어말어미 통합 양상의 변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선어말어미 통합 양상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것은 ‘-었-, -었었-, -겠-, -었겠-, -시-’이다. 그런데 선어말어미 통합 양상은 연결형에서 더 활발하고, 그것이 종결형에서 사용될 때는 통합하는 선어말어미의 수가 줄어들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결어미의 형태론적 통합 제약이 연결형과 종결형이라는 출현 상황에 따라 달라짐을 뜻한다.

또한, 이 때 통합이 가능한 선어말어미에도 선호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일정한 순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통합에 가장 적극적인 선어말어미는 ‘-시-’이다. 그리고 ‘-었-’과 ‘-었었-’은 통합 가능성이 서로 비슷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뒤를 ‘-겠-’과 ‘-었겠-’이 뒤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순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9) 연결어미에 통합하는 선어말어미의 용이성 순위

-시- > -었- ≥ -었었- > -겠- > -었겠-

개별 연결어미가 보이는 통합 상의 특성에 대해서는 연결어미의 개별 의미 해석과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다만, 연결어미와 ‘-서(<서:시어)>’가 통합되어 이루어진 연결어미들이 종결형에서 독특한 특성을 많이 보이고 있음을 지적해 두기로 한다. 여기에는 ‘-고서’, ‘-어서’, ‘-면서’가 해당되는데, 이들은 여타 연결어미와 달리 종결형에서 더 많은 선어말어미, 보조사와 통합할 수 있다. 이는 여타 연결어미들에서 보이는 것과는 다른 특성이다. 특히 ‘-어서’의 경우에는 최근 언어 자료에서 ‘-었-’, ‘-겠-’은 물론 ‘-었었-’과 ‘-었겠-’도 통합되어 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감지된다.¹⁶⁾

이상의 내용을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의 양측으로 구분하는 입장에서 검토할 때, 어말어미의 통합 관계를 통해서는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를 구분하는 형식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고의 논의 대상이 되었던 어미가 연결어미가 종결어미의 용법을 가지는 추이 양상을 보이는 것이었음을 감안할 때,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를 구획하는 통합 관계상의 특이점은 찾기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 본고의 이와 같은 결론은 기왕에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를 그 ‘분포’에서

16) 이들은 550만 세종 말뭉치에서는 검색되지 않으나, 인터넷 상의 문자열 검색에서는 매우 많은 수가 검색된다.

찾으려 했던 것이, 실은 문장, 혹은 문 종결을 규정하는 기능론적 결과로 환원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結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결어미가 보이는 통합 관계와 통사론적 현상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어미의 통합 관계를 가장 극심하게 제약하는 것은 반복형(‘내용 접속문’)이라는 통사구조이다. 이 구조를 이루게 되는 경우에는 어휘적/담화적으로 생산적인 형태소의 통합도 제약된다.
- (2) 의지·소망의 맥락에 사용되는 연결어미는 형식동사 ‘하-’와 통합하는 특성을 보인다.
- (3) 어미가 문말 휴지에 선행하여 종결형으로 사용될 경우, 어미의 통합 현상이 제약된다.
- (4) 어미가 연결형으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종결형으로 사용되는 경우보다 선어말어미 통합이 더 활발하다. 다만, 역사적으로 ‘-사-’와 통합하여 이루어진 어미는 그 반대 방향의 통합 양상을 보인다.
- (5) 어미와 잘 통합하는 선어말어미는 다음과 같은 순위를 보인다.
-시- > -었- ≥ -었었- > -겠- > -었겠-
- (6) 선후행 형식과의 통합 관계만을 살펴볼 때,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는 그 구분 한계가 분명하지 않다. 이는 문장(종결)을 통해 규정해 온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의 구획이 형식적인 근거를 분명히 하기 어려움을 뜻한다.

본고는 국어 어말어미의 형태론적 통합현상만을 다루었다. 또 어말어미의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하여, 일부 선어말어미 통합현상만을 다루었다. 통시적인 것으로 볼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더’를 더 다루는 것이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어말어미의 통사/구조적 현상, 의미 해석과의 종합적 연구로 그 온전한 해석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차후의 지속적 연구로 종합적인 결과를 보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주제어 : 어미, 통합 관계, 종결어미, 접속어미

참고문헌

- 고광주(1999), '대등 접속문에 대한 재검토', 한국어학 9, 49~80.
- 김영희(1988), '등위 접속문의 통사 특성', 한글 201·202.
- 김정대(2004), '한국어 접속문의 구조', 국어국문학 138, 121~152.
- 金興洙(1977), '繼起의 '-고'에 대하여', 國語學 5, 113~136.
- 노마 히데키[野間秀樹](2002), '한국어 어휘와 문법의 상관구조', 태학사.
- 서형국(2005a), '국어 접속 구성의 문법사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 서형국(2005b), '복합 구성의 구성 성분에 대하여', 제38회 한국어문학회 전국학술대회발표요지집, 81~94.
- 유현경(1986), '국어 접속문의 통사적 특질에 대하여', 한글 191, 77~104.
- 유현경(2002), '부사형 어미와 접속어미', 한국어학 16, 333~352.
- 유현경(2003),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 쓰임에 대하여', 한글 261, 123~147.
- 윤석민(2000), '현대국어의 문장종결법 연구', 집문당.
- 이관규(1992), '국어 대등구성 연구', 서광 학술 자료사.
- 이관규(2002), '국어의 문장 구성에 대한 연구와 전망', 한국어학 16, 105~147.
- 이은경(2000), '국어의 연결 어미 연구', 태학사.
- 임홍빈(1972), 'NP-병렬의 {와/과}에 대하여',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4,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임홍빈(1998), '국어문법의 심층 2, 405~435에 다시 실림.
- 崔東柱(1994), '國語 接續文에서의 時制現象', 國語學 24, 45~86.
- 최웅환(2002), '국어 접속문의 통사적 표상에 대한 연구', 언어과학연구 23, 225~248.
- 崔在喜(1985), '-고'接續文의 樣相, 국어국문학 94, 139~165.
- 허철구(2004), '대등접속문의 통사 구조', 배달말 36, 55~85.

【 】

이 논문은 국어 어말어미가 보이는 통합관계를 바탕으로 국어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를 구분하는 형식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 (1) 어미의 통합관계를 가장 극심하게 제약하는 것은 반복형(‘내포접속문’)이라는 통사구조이다.
- (2) 의지·소망의 맥락에 사용되는 연결어미는 형식동사 ‘하.’와 통합하는 특성을 보인다.
- (3) 어미가 문말 휴지에 선행하여 종결형으로 사용될 경우, 어미의 통합 현상이 제약된다.
- (4) 어미가 연결형으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종결형으로 사용되는 경우보다 선어말어미 통합이 더 활발하다. 다만, 역사적으로 ‘-사’와 통합하여 이루어진 어미는 그 반대 방향의 통합 양상을 보인다.
- (5) 어미와 통합되는 선어말어미는 다음과 같은 선호도의 순위가 확인된다.
-시- > -었- ≥ -었었- > -겠- > -었겠-
- (6)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는 통합관계를 통해서는 분명히 나뉘지 않는다.

【Abstracts】

The Syntagmatic Distribution of Endings of Korean

Seo, Hyeonguk*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syntagmatic distribution of endings of Korean and to evaluate their meaning to the status of ending. To accomplish this purpose, I investigate the distribution of ending on the base of corpus linguistics, so I delimited the endings to ‘-go, -eo/eoseo, -go/goseo, -(eu)myeon, -(eu)myeonseo, -(eu)nde, -jiman, -(eu)ni(k'a), -(eu)ryeogo, -(eu)reo, -deunji, -neurago, -geodeun, -ge, -dorok,’ which are used in both “conjunctive” circumstance and “terminative” circumstance. And I defined “the circumstances” something which is a) the syntagm of prefinal endings like ‘-eoss, -eosseoss, -gess, etc,’ b) the pause of sentence ending(#), c) bojosa, d) copula ‘-i-’, and e) “#ha-”

By this investigation, It can be conducted like those.

(1) The most decisive factor of delimiting the distribution of ending is the syntactic structure of reiterating representation.

(2) The endings which are used in the context of intention/desire can distribute with the formal verb ha-.

(3) If a endings are used as terminative which is followed by the sentence final pause, the syntagm of those endings are

* Research Manager, The Department of Dictionary Writing, Gyeoremal Dictionary.

delimited.

(4) When a ending used as conjunctive, that ending can combine more freely with prefinal endings than the case the ending is used as terminative. But the ending which is formulated as complex ending with ‘-seo’ historically represent reverse appearance.

(5) The prefinal ending's ranking of combination with ending is:

$$-si- > -eoss- \geq -eosseoss- > -gess- > -eoss-gess-$$

(6) From the sight of the formal distribution, the discriminative limit of conjunctive ending and terminative ending is very difficult.

Key Words : ending, syntagmatic distribution, terminative ending,
conjunctive ending

이 논문은 2006년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2월 15일 게재 확정되었습니다.